

## 한국 여성, 베트남 남성과 '재혼' 급증

한국 여성과 베트남인 남성의 재혼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인 재혼 여성이 선택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 1위가 베트남(586명)이었다. 이어 2위는 중국(446명), 3위는 미국(141명), 4위는 필리핀(46명), 5위는 일본(33명) 순이었다.



▲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한국 여성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7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 통계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이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재혼한 여성의 원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이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86.7%)이 귀화 한국인이었다. 482명 중 식별할 수 없는 2명을 제외하고 480명 전원(100%)의 원래 국적은 베트남

남이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얻고, 이혼 후에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베트남 남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면 한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노린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해 본래의 베트남 남성을 한국으로 불러 재혼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급증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거래 급감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 서울 김포의 한 아파트 건물 외벽에 미분양 물량을 할인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9321건으로 전월 1만1619건 대비 19.8%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월(6332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2년 하반기 가파른 급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었다. 하지만 작년 초 1·3대책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월에는 1만7401건으로 2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부터 지난 달까지 4개월 연속 줄며 다시 1만건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기 진입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방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분양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계약을 대거 포기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 흐름이 최근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돌아오자 다시 살아난 명동 상권



▲ 외국인 관광객 등이 명동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서울 명동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9.4%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42.4%) 대비 무려 33%p 감소한 수치다. 이로써 명동은 강남, 홍대입구, 이태원 등 서울 6대 상권 중 공실률이 가장 낮은 상권으로 올라섰다. 공실률이 낮다는 건 상권 활성화를 뜻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온 명동 상권은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바 있다. 2022년 4분기 명동 공실률은 42.4%에 달했다. 명동에 있는 가게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었던 의미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입국자 수는 10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인 명동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같은 기간 한남·이태원(13.2%→9.9%), 홍대(18%→14.4%) 상권의 공실률도 하락했다. 반면 강남의 작년 4분기 공실률은 23.3%로 전년 동기(17.6%) 대비 5.7%p 올랐다. 같은 기간 신사 가로수길 공실률은 31.5%에서 36.3%로 뛰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인근 상권측 확장이 악영향을 미쳤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http://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